

원유의 생산 유통 실태와 집유일원화의 실현방향

정찬길 (농업경제학 박사)
건대축산경영학과교수

1. 머리말

우리나라는 19세기초에 젖소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1910년에 젖소 사육두수는 452두 정도였고, 해방과 6·25동란을 지나 1960년도에 이르러서도 사육두수는 866두에 불과하였음은 물론 우유처리 시설도 초보적인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62년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이 진행되면서 낙농산업 역시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낙농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1967년에 낙농진흥법이 제정되고, 1969년에 초지법이 제정됨과 동시에, 1967년에 경제개발 제2차 5개년계획 중 축산진흥계획의 수립은 낙농업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의 결과, 1962년에 2,406두에 불과했던 젖소 사육두수가 1987년말에는 463천두나 되었으며, 사육농가는 38천에

달해 호당 사육두수도 약 12두에 이르렀다.

우유 1인당 소비량도 동기에 1.1kg에서 31.9kg으로 29배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낙농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성장지향적 정책과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급격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낙농업이 농업부문에서 소득이 가장 잘 보장되는 산업으로 정착되었다.

한편 낙농생산기반, 원유처리시설, 그리고 원유소비량등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급불일치와 소비의 계절성은 낙농산업구조의 근원적 조명이 요망되고 있다.

낙농산업의 개선방안 가운데 수급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집유일원화론이 낙농산업에 유관된 각계 각층에 의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종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집유일원화론이 지상과 각종 모임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 제기되었으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집유일원화가 실현되었을 때 막대하다고 이야기

되고 있는 원유유통비가 얼마나 절감될 것이며, 지금까지 낙농농가와 집유업체간에 끊이지 않고 있는 납유 또는 수유거부, 검사 및 계량시비, 유대지불지연, 선대자금요구, 집유경쟁, 납유선 이동, 유대의 가공품대납 등, 원유의 공급과 수요의 초과발생 때마다 야기되는 수많은 시비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꺾여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안책이 없이 주장만 분분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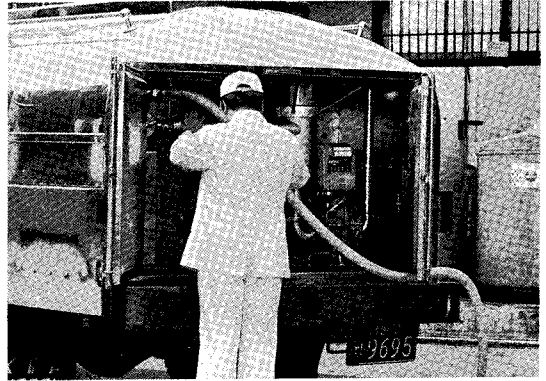
따라서 낙농농가의 입장에서 집유일원화의 필요성과 일원화에 의한 농가소득제고여부, 낙농농가에 유리한 집유주체와 운영방안 등을 제시코저 한다.

2. 원유의 생산과 소비

원유의 생산은 젖소 사육두수, 노동력의 공급, 조사료의 공급수준, 기술향상과 기계화, 젖소의 성격, 그리고 원유에 대한 수요의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원유의 생산량은 1980년의 452천톤에서 1987년에는 1,350천톤에 이르러 3배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우유수급실태를 보면, 연평균 생산증가율이 소비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연도별 원유생산의 지역별 집중도는 사육두수



의 경우에 서울·경기·인천지역은 1971년에 72.4%에서 1987년에는 51.9%로 현저한 감소현상을 보였고, 동기에 강원·충청은 12.7%에서 20.2%로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낙농업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인지역 중심의 대도시형에서 강원·충청·호남지역 등 중도시 소비지 중심으로 분산전환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원유는 수급의 계절변동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과 소비의 특성으로 인하여 3-6월, 9-11월에는 공급부족이 발생하고 7-8월, 12-2월에는 공급과잉현상이 매우 현저하다.

3. 원유의 유통과 문제점

유제품의 질과 신선도는 원유의 질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원유유통의 체계화와 효율

원유의 생산은 젖소 사육두수, 노동력의 공급, 조사료의 공급수준, 기술향상과 기계화, 젖소의 성격, 그리고 원유에 대한 수요의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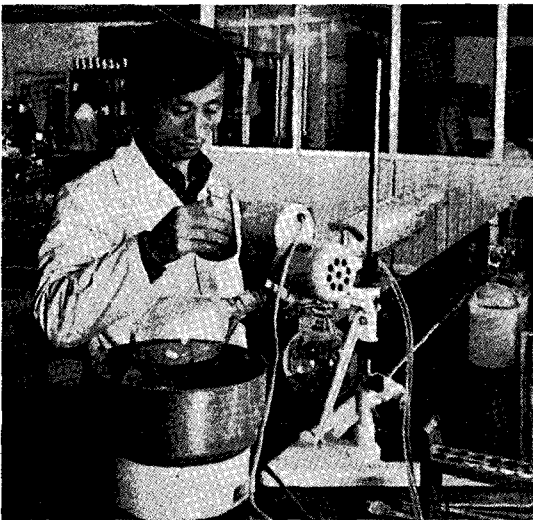
전 유업체의 산출평균 집유비인 18.6원/kg을 유지하게 되면
총집유비는 2백30억원으로 연간 40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15원까지 유지하면 연간 85억원까지 절감

화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특히 높은 집유비와 유통과정에서 원유의 변질은 낙농농가의 소득에 직접적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원유유통제도의 개선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이다.

유가공업체별로 집유가 일원화되어 있는 현행 원유유통체계는 ① 낙농가→집유장, ② 낙농가→원유처리공장, ③ 기업목장→집유장, ④ 집유장→원유처리공장 등의 4가지 유통경로가 있다.

원유의 수송수단으로는 도로까지 우유통운반이 28.1%, 목장에서 우유통적재 37.5%, 탱크로리 집유 30.2%, 자가용으로 공장까지가 4.2%로 조사보고 되었다. 이처럼 집유선동결조치



이후 원유유통경로와 수송수단이 다양하고 전근대적이며, 화물차를 이용한 통집유는 경제적 집유수송, 유지방보존 등에서 많은 문제를 노출시켜 낙농가에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집유선동결로 인하여 시·군의 48%가 2개 이상의 유업체, 경인지역 50%의 시·군이 4개 이상의 유업체들이 중복하여 집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집유비가 발생하여 낙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주고 있다. 유업체의 조사에 의하면 원유 1kg당 집유비는 A업체 16.7원, B업체 31원, C업체 23.2원, D업체 25원, E업체 15.1원, F, G, H업체 각 13원, I업체 14.5원, 기타 25원으로 유업들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전업체의 연간 총집유비를 추정 한 결과 약 2백 70억원 이나 되었다. 또 최저집유비 13원 일때 1백 61억원이고 최고집유비 31원 일때에는 3백 48억원이나 되었다.

이와 같이 유업체간에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집유를 전 유업체의 산출평균 집유비인 18.6원/kg을 유지하게 되면 총집유비는 2백 30억원으로 연간 40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15원까지 유지하면 연간 85억원까지 절감할 수 있어 이 액수만큼 낙농가는 소득제고효과를 거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낙농가가 납유하는 원유를 집유업체가 직접 검사하고 계량함으로써 유지방율, 산패율 등이 다른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수치와 다르고 또는 조작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검사의 공정성, 공개성, 그리고 신뢰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실태는 원유생산과잉과 우유수요 감퇴시 만연되고 있어 이로부터 초래되는 경제적 손실이 낙농가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4. 원유유통의 개선방안

원유유통개선의 가장 합리적이며 최선의 방안은 집유일원화이다. 집유일원화를 이룩하게 되면 막대한 집유비의 절감이 가능하며, 유업체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고, 낙농농가와 수유업체간의 각종 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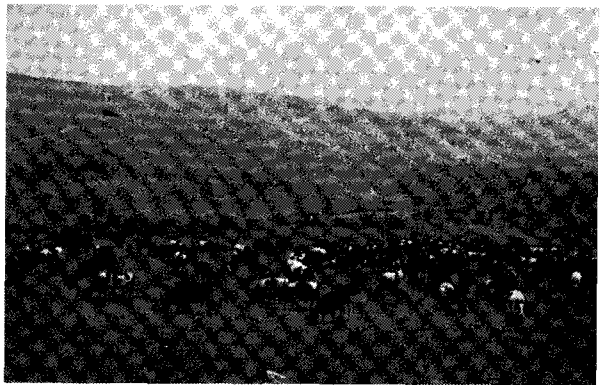
집유일원화를 이룩하게 되면 막대한 집유비의 절감이 가능하며, 유업체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고, 낙농농가와 수유업체간의 각종 마찰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집유체제의 통합적 관리, 원유의 수급안정, 원유의 물적 유통효율 증진, 원유가격안정, 원유품질 개선, 유제품의 생산안정, 낙농농가의 소득제고 등의 다양한 효과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원유의 유통개선에 대하여 연구기관, 학

계, 협동조합, 생산자단체, 유업체가 각종 방안을 제시하여 왔는데 공통적으로 집유일원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집유담당주체에 대하여는 각기 상이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즉, 그 담당기구로 생산자조직, 낙농산업조정기구, 낙농위원회, 낙농공사, 원유유통공사 등을 설립하여 집유기능을 수행케 해야 한다고 상호이해관계로 그 논쟁의 초점이 다양하였다.



현재 우유처리공공장이 48개소에 이르고 이중 낙농가 단체가 10개소, 유업체가 38개소이다. 38개소의 유업체 가운데 협동조합이 9개소, 민간업체가 29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집유비율을 보면 협동조합이 43.0%, 유가공회사가 56.4%, 납유처는 각각 36.6%, 63.4%였다.

이와 같이 집유율과 납유율을 검토하고 있는 업체들이, 집유일원화의 기본원칙에는 의견을 함께 하면서도 집유담당주체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집유독점화에 따른 이해관계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집유독점단체가 우유처리공기능을 소



집유 일원화는 정책적, 재정적인 지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기능의 정착화와 함께 민영화 내지 생산자 조직으로 이양되어야 만이 제기능을 발휘한다.

유하고 있을 경우 타우유처리 가공업체간 분배상의 이해가 집유일원화 실현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집유는 일원화하되 집유담당기구는 생산농가, 유업체, 우유처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협동조합과는 무관한 제3자적 기구가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아기적 단계에서는 제3자적 기구는 정책적 지원이나 재정적 측면에서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기구이어야 하며, 기능의 정착과 함께 민영화 내지는 생산자조직으로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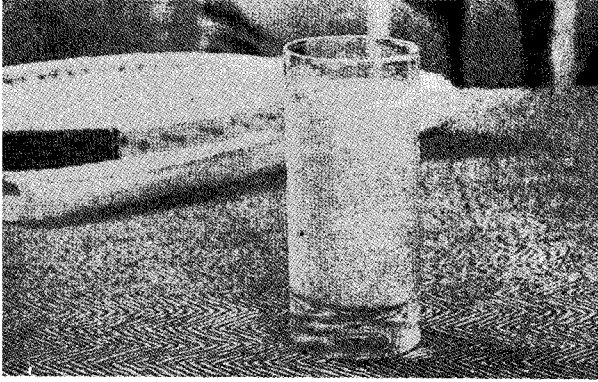
왜냐하면 집유일원화를 위한 집유장 건설과 탱크로리 등 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일당 20톤 정도의 원유를 집유할 수 있는 집유장의 건설비는 약 2억원의 재원이 소요되고 이의 연간 운영비는 약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결국 1986년 기준 집유량 1백 15만 4천 5백톤을 집유처리하기 위해 일당 20톤 규모집유장 1백 28개소에 총 2백 56억원이 소요된다.

또한 이들 집유장의 운영비는 연간 1백 28억원이 든다. 그러므로 집유일원화를 위하여 필요한 총소요자금은 3백 84억원으로 추산된다.

만일 각 유업체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존 시설을 인수 혹은 임대하여 이용할 경우, 소요 시설 및 장비의 50%를 충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약 2백억원 이상의 신규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현재 낙농농가의 입장에서 집유를 직접담당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막대한 소요재원의 염출이나 운영기법이 집유일원화실현의 핵이 될 수 밖에 없다.

낙농농가의 이익을 고취하기 위해서 새 집유수행기구는 그 기능상에 있어서 집유 및 배유(配乳)는 말할 나위 없지만 이외에도 검사업무, 집배유시설, 장비요원의 운영, 낙농가와 유업체의 지도, 관련 생산자재의 수출입업무 전담, 유대결산업무 담당, 소비홍보, 연구개발 등을 관장케 하고, 이들 주·부기능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구의 산하에 낙농가, 소비자, 관



련업계, 학계, 정부, 집유주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 우유유통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기구의 운영과 원유수급안정을 영구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우유수급안정기금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 기금은 낙농농가의 검사비, 수수료, 집유비, 젖소도입분양 차익금, 낙농기자재의 판매, 낙농용사료판매, 수입제품의 관세 일부와 판매차액으로부터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38천여 낙농농가들은 집유일원화와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이양받아 원유의 생산과 유통을 관장하기 위해서 협동적 집단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직화를 통하여 시장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고, 생산물의 질적·양적 통제에 통일적 입장확립은 물론, 생산과 유통 양면에서 집단적 대응력을 갖추어 기업적 경영이 발휘하는 경제행위와 유사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구조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함을 38천 낙농가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집유비는 낙농농가의 입지에 의한 수송거리,

지역적 밀집도, 납유량의 규모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업체들이 집유를 담당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동일율의 집유비가 적용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가개념하에서 개별 낙농가의 수송거리, 납유량, 밀집도 등의 여건들이 평가 반영된 집유비가 차등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리한 입지적 여건과 효율적 경영체계를 구축한 낙농농가들의 선의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낙농가별 사육두수의 조절, 집단사육지역의 조성, 생산기자재의 저렴화를 유발하는 장기적 구조개선을 성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42백만의 인구나 1인당 GNP가 2,300달러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38천의 낙농농가가 463천두의 젖소로부터 135만톤의 우유를 생산하는데 우유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유업체의 경영압박과 낙농농가들에게 각종 직·간접적 불공정행위인 유대의 지불지연, 수수거부는 물론 검사 및 계량시비가 다시 일어나고 생산농가들이 생유를 버려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상존하는 우유수요와 자연증가에 의한 수요창출의 열매만을 따먹기에 급급하고 가공유처리생산기술의 향상과 시유유통비의 절감을 통한 저렴한 가격의 시유보급에 소홀하고 있는 유업체는 물론 경영의 체질개선을 도모하여 원유생산비의 절감에 낙농농가 모두가 깊은 성찰을 통하여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시 한번 도약을 해야 할 것이다.